

조선시대 목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Wooden Type Buddhist Book Edi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송 일 기 (Song, Il-Gie)*

◁ 목 차 ▷

- | | |
|-------------------|--------------------|
| 1. 서 언 | 3.5 高僧文集 |
| 2. 목활자본 불서의 傳存 현황 | 4. 목활자본 불서의 문헌적 특성 |
| 3. 목활자본 불서의 간행사실 | 4.1 조선전기 불서 |
| 3.1 乙酉字體字本 | 4.2 조선후기 불서 |
| 3.2 印經字本 | 5. 결 언 |
| 3.3 寶光社字本 | <참고문헌> |
| 3.4 奉印寺字本 | |

< 초 록 >

이 연구는 조선시대 목활자로 간인한 불교서적에 대해서 서지학적 측면에서 그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조선시대 목활자로 간행한 불교서적은 모두 24종이 현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간행에 사용한 활자별로 분석해 보면, 을유자체자본이 6종, 인경자본이 3종, 보광사자본이 6종, 봉인사자본이 2종으로 파악되었으며, 그리고 고승문집이 6종이 목활자로 인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 중 을유자체자와 보광사자로 간인된 불서가 12종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어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를 간행 시기로 분석한 결과, 조선전기에는 9종이, 조선후기에는 15종의 불교서적이 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세조와 고종 대에 간행된 목활자본은 14종으로 조사되어 전체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조의 호불적 성향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고종대의 상궁을 중심으로 왕실에 여전히 신불 행위가 지속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要語: 불교서적, 목활자, 세조, 을유자체자, 인경자, 보광사자, 고승문집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접수일: 2015년 5월 29일 최초심사일: 2015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books printed using wooden type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from a bibliographical perspective. It was found that there are 24 kinds of Buddhist books published using wooden type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that currently exist. In terms of the types used for publication, there were 6 kinds of printed editions by Eulyuja type, 3 kinds of printed editions by Inkyongja, 6 kinds of printed editions by Bokwangsaja, 2 kinds of printed editions by Bonginsaja, 6 kind of printed editions of Buddhist Monk books by different wooden type. Among them, The Buddhist books printed using Eulyuja type and Bogwangsaja were 50 % of total with the highest quantity of 12 kinds. In terms of periods of publication, it was found that 9 kinds and 15 kinds of Buddhists books were published respectively in the first and latter parts of Joseon Dynasty periods. Among them, there were 14 kinds of editions published during the King Sejo and Kojong period that occupied 58% of total. Such a phenomenon was deeply due to King Sejo's Buddhism-friendly tendency and shows that continuous Buddhistic service with court ladies were continued through the whole Dynasty to King Kojong.

Key words: Buddhist books, Wooden Type, Sejo, Eulyouja type, Inkyongja, Bokwangsaja, Buddhist Monk books

1. 서 언

인쇄기술사에 있어서 活字인쇄는 木板인쇄와는 달리 그 발명자가 중국 송대 경력연간(1041~1048)에 활동했던 畢昇이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장은 거의 동시대에 활약했던 沈括(1031~1095)이란 사람이 지은 『夢溪筆談』에 활자 인쇄에 관한 사실을 기술한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승이 과연 최초의 발명자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그는 膠泥를 이용하여 활자를 만든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교니활자는 찰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지 실용적이지 못하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재료로 朱錫이나 납[鉛] 등 여러 재료로 실험해 왔으나, 결국 구리[銅]와 나무[木]가 가장 보편적인 재료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활자 중에 나무가 초기단계로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던 재료였다. 필승이 교니활자를 만들었을 무렵, 중국의 서북쪽 지역에 西夏가 등장하였다. 당시 서하는 한자를 변형하여 西夏文을 만들어서 한문불경을 번역하여 목판과 활자로 수 만권에 달하는 서하문 불경을 간행하였다. 서하에서 간행한 불경 중에는 흙[土]과 나무로 만든 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한 서적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 후 원나라의 王禎은 자신이 편찬한 『農書』를 찍어 내기 위해 6만자의 목활자를 만들었다는 사실로 보아 활자 인쇄 초기부터 목활자가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고려 때 목활자로 인쇄한 실물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나,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직지심체요절』에 상당수의 목활자가 보자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다.¹⁾ 이러한 사실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목활자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개국 초기부터 錄券 등을 목활자로 인쇄한 실물자료와 다양한 서적이 남아 있으며, 임란 이후로는 훈련도감자를 비롯하여 계보를 알 수 없는 민간목활자로 인쇄한 족보와 문집

1) 黃正夏, “高麗時代 直指活字 鑄造法의 實驗의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7), 38-43.

류 등 엄청난 분량의 서적이 현전하고 있다.²⁾

이처럼 조선시대에 들어와 목활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대체로 개인의 시문집이나 족보류, 그리고 성리학 학습에 필요한 유가류 서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종래 목활자에 관한 연구는 활자의 계보나 지역적 간행양상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성과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에 목활자로 간인된 불교서적을 대상으로 그 현전본의 전존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해당 불서의 간행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문헌적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목활자본 불서의 傳存 현황

조선시대 서적의 인쇄에 사용된 활자는 대체로 금속활자와 목활자로 구분된다. 이 중 목활자는 나무에 글자를 새겨서 한 글자씩 만든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목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한 서적은 주로 후기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기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전기에 주목되는 목활자본은 세종대에 간행된 운서류를 비롯하여 세조대와 연산군대에 인출된 불경류, 그리고 임란 직전에 간행된 성리학 서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임란 이후에는 훈련도감과 교서관에서 목활자를 제작하여 수많은 국가서적을 인출하였으며, 또한 민간에서도 엄청난 분량의 족보와 문집 등을 사사로이 인쇄하여 서적보급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목활자를 사용하여 불교서적을 찍어 낸 경우는 세조와 고종대의 특정시기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다음은 조선시대 전 시기 동안 목활자로 인쇄한 불서를 조사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2) 玉泳晷,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2). 參見.

<표 1> 조선시대 목활자본 불서의 간행현황

活字名	書名	세부비율	
		種數	比率
乙酉字體字	開四分律宗記義鏡鈔, 金剛般若波羅密經,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引教詳義直解, 普賢行願品禮懺法補助儀, 伍燈會元, 傳法正宗記	6종	25%
印經字	天地冥陽水陸雜文, 六祖大師法寶壇經, 眞言勸供	3종	13%
寶光寺字	金剛經石柱, 普偏光明焰鬘清淨熾盛如意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疑羅尼經, 三峯集, 六祖大師法寶壇經, 妙法蓮華經,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	6종	25%
奉印寺字	(會編)禪門拈頌集說話, 禪源遡流	2종	8%
高僧文集	雪潭集, 括虛集, 櫟山集, 艸衣詩藁, 克庵集, 混元集, 冲虛大師遺集	7종	29%
		24종	100%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목활자로 인출된 불서는 모두 24종이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을유자체자와 보광사자로 인쇄한 불서가 각각 6종으로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경자본가 3종, 봉인사본이 2종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고승문집은 7종이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동일한 목활자로 인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간행 경향을 보면 목활자본 불서는 전적으로 세조와 고종 때 왕실과 특정 사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목활자본 불서의 간행사실

3.1 乙酉字體字本

세조는 을해자를 비롯하여 정축자와 을유자 등 여러 종류의 금속활자를 만들어 많은 불서를 인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렵에 나무로 만든 목활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불서를 간행한 사실이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조는 수많은 불교서적을 활자로 찍어내게 했다. 그러나 목활자의 제작 주체나 시기, 그리고 인출

경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사실이 없다. 다만 당시 인출된 불서의 글자체를 살펴보면, 대체로 을유자와 흡사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으로 ‘乙酉字體字’로 일컬어지고 있다.³⁾

이 목활자는 나무에 손으로 하나씩 새겼기 때문에 금속활자인 을유자에 비하면 글자의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글자 획도 가지런하지 않다. 하지만 활자를 만든 뒤 바로 찍어낸 불서의 경우 먹색의 농담과 인쇄의 선명도가 오히려 금속활자인 을유자보다 나은 편이다. 이 목활자로 인쇄한 불서는 현재까지 『傳法正宗記』 등 여러 종이 알려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을유자체목활자본

活字名	書名	刊行年代	卷次	所藏處	分類
乙酉字體字	開四分律宗記義鏡鈔	[世祖年間]	권4	진 송광사	律典類-大乘部
	金剛般若波羅密經	[世祖年間]	單	규장각	經典類-般若部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引教詳義直解	[世祖年間]	單	고인쇄박물관	註疏類-般若部
	普賢行願品禮懺法補助儀	[世祖年間]	單	천혜봉	禮懺類-法儀式
	伍燈會元	[世祖年間]	권6	동학사	宗義類-禪宗
	傳法正宗記	[世祖年間]	單	천혜봉	史傳類-傳記部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을유자체목활자로 인쇄된 불서는 모두 6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이들 불서에는 『開四分律宗記義鏡鈔』 등 장소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최근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引教詳義直解』이 청주 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伍燈會元』은 동학사 대웅전의 삼세불에서 새로 수습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세조가 궁 안에 설치한 간경도감에서도 고려시대 의천의 주관으로 간행된 바 있는 교장본을 중수하거나 새로 간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목활자로 간행하였던

3)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24.

4) 천혜봉은 碧巖錄, 釋氏要覽, 圓教六卽儀, 釋迦如來行蹟頌, 右旋行道破邪顯正義 등 5종의 을유자체목활자본을 더 소개하고 있으나, 필자는 실물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것이다.

이 중 『개사분류증기의경초』는 천태종 계통의 譚山 사문 行滿이 찬술한 사분율의 장소 중 하나로 전 20권으로 편찬되었으며, 의천이 편찬한 『敎藏總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에 조사한 보고서에는 당시 이 책이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지금은 그 소재가 알려져 있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불서 중에 이 책이 유일하게 활자로 간행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금속활자 혹은 목활자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전 20권 중 권4의 1책(97장)에 불과하나 말미에는 ‘正校’라는 朱印이 찍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⁵⁾

근래 동학사 불복장에서 수습한 『五燈會元』은 남송의 선승 普濟(1178~1253)가 기존에 편찬된 傳燈錄 가운데 요점만을 가려 뽑아 편찬한 선가 어록집의 일종이다. 편자 보제는 속성이 張씨며, 호는 大川으로 奉化 출신이다. 그는 19세에 출가하여 妙勝禪院과 大慈報國寺에 머물면서 천태의 선을 학습하였다. 보제는 이전에 편찬된 5종(曹洞宗, 法眼宗, 滄仰宗, 雲門宗, 臨濟宗)의 전등류를 전거로 종합한 것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열람에 편리하다. 이는 道原의 『景德傳燈錄』, 李遵勗의 『天聖廣燈錄』, 惟白의 『建中靖國續燈錄』, 道明의 『聯燈會要』, 正受的 『嘉泰普燈錄』 등으로, 5종의 전등록에서 그 요지를 선별하였기 때문에 서명을 ‘五燈會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중국과 일본에서만 간행되어 있을 뿐 정작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은 전하지 않고 있다. 최근 동학사 아미타불 복장에서 발견된 목활자본이 유일한 실정이다. 본래 이 책은 현전하는 중국본에 의하면 모두 20권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동학사 복장본은 권6의 1책만이 수습된 상태이다.⁶⁾ 그러나 누습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상당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며, 잔권으로 정확한 간행사 실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책의 권수에는 목차가 수록되어 있는데, 목차는 대항목과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승려들의 계보는 대항목으로 묶고 소항목에 승려들을

5)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原稿本.

6) 송일기,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의 복장전적,”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145.

분속해 넣는 방식이다. 관심부의 권장차 사이에 본문 내용에 해당하는 선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일종의 색인적 기능을 하고 있다.⁷⁾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전기에 간인한 을유자체목활자본이라는 점과,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유일본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선종의 여러 역대 조사들의 법맥을 수록한 『전법정종기』는 송나라 契嵩(1007~1072)이 7년 동안의 노력 끝에 1061년 편찬한 선종의 계보문헌이다. 이 책은 본래 모두 9권으로 편찬되었으나, 조사들의 법맥을 도표로 만든 『定祖圖』(1권)와 본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傳法正宗論』(2권)을 포함하여 12권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유통을 조사해 보니 중국과 일본에서 간행된 판본만 보일 뿐 조선시대 간행된 목판본은 없고 다만 이 목활자본이 유일하다.

그리고 육조 혜능의 주해본인 『金剛經六祖解』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문은 혜능의 주해와 집주가 달려 있다. 권수에는 육조 혜능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고, 본문은 금강경 원문에 대해 혜능의 주해는 본문보다 한 줄을 내려 시작하며 혜능의 주해문 다음에 集註가 첨부되었다. 그런데 이 집주에는 寶積經·法華經·華嚴經·正法眼藏·萬善同歸集·禪要經·傳燈錄·阿含經 등의 불경과 유가경전인 『論語』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또한 집주 다음에는 臨濟義玄·逍遙太能·雲門文偃·黃蘗希運·圓悟克勤·治父川老·百丈懷海·大慧宗杲·馬祖道一·雙林傅大士·圭峰宗密·中峰明本·永嘉玄覺 등 여러 선사들의 어록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권말에는 中峰(1263~1323)의 말을 인용한 발원문이 보이고 있는데, 이 글에는 금강경을 유통시키고자 여러 동지들과 함께 鑄刊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 다음에는 2장 분량의 『佛說大藏寶積經』이 함부되어 있고, 뒤에는 信士 潭慧那가 사재를 내어 금강경을 刊造하여 널리 유통시켜 國泰安民을 바란다는 발원문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간행 장소나 시기, 주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간기는 없으나, 을유자체목활자로 인출되었고 고정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세조연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7)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에 중국판본과 판식의 특징이 매우 흡사하여 이를 저본으로 목활자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3.2 印經字本

인경자는 성종이 승하하자 인수대왕대비와 성종의 繼妃인 貞顯大妃는 연산군 원년(1495)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圓覺寺에서 대규모로 불경을 간행하고 동일한 발문을 찍어 내기 위해 목활자를 제작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다음해(1496)에 왕실에서 지원한 내탕금으로 목활자를 더 만들어 불서를 인쇄하는데 사용한 목활자를 ‘印經字’라 부른다.⁸⁾

이 목활자로 불서를 간행한 일은 성종의 계비인 정현대비와 德宗의 비인 인수대왕대비가 지원하였으나, 인쇄의 실무적인 일은 學祖가 맡아 주관하였다.⁹⁾ 인경자는 글자체가 단아한 필서체 느낌을 보이고 새김이 정교하다. 인쇄도 먹색이 선명하여 인본들이 매우 정교하고 우아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때 인쇄한 국역불서는 한글 목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하였는데, 한글의 표기가 당시 한자음을 실제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방점이 있어 국어학적으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대체로 보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인경목활자로 인쇄한 불서는 현재까지 아래의 3종에 불과하며, 그 전래본 또한 극히 희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 인경목활자본

활자명	서명	간행연대	권수	소장처	분류
印 經 字	天地冥陽水陸雜文	燕山君2(1496)	單	국립중앙도서관 천리대도서관	禮懺類-齋儀式
	六祖大師法寶壇經	燕山君2(1496)	2권	산기문고 규장각, 일사문고	宗義類-禪宗
	眞言勸供	燕山君2(1496)	單	경기도박물관 규장각, 성암문고	禮懺類-法儀式

위와 같이 인경목활자로 인쇄된 불서는 3종에 불과하며, 그 외에 학조의 발문을

8) 千惠鳳, “燕山朝 印經木活字本에 대하여,” 『趙明基博士華甲紀念佛教史學論叢』 (서울: 동간행위원회, 1965), 26.

9)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175.

인출하여 권말에 수록한 사례가 있다. 이 중 『천지명양수륙잡문』은 한문본이며, 『육조대사법보단경』과 『진언권공』은 언해본이다.

먼저 한문본인 『천지명양수륙잡문』은 불가에서 행하는 水陸齋에 관한 각종 의식절차에 대한 의례서이다. 이 책은 세조 10년(1464)에 중국에서 구해 와서 왕명으로 수십 권을 갑인자로 처음 간행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인경목활자본은 연산군 2년(1496) 인수대비의 지원으로 간행된 것이다. 권말에 원나라 대덕 3년(1299)에 吳居仁이 쓴 중국본 발문과 1496년에 쓴 인경자본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인경자본 발문에 따르면 원본인 중국 蕭武가 지은 水陸儀文은 仔夔, 志槃, 中禮, 結手, 排備疏榜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 중 오직 배비 소망만 간본이 없어 세조가 중국에서 구해 세조 9년(1464) 鑄字(초주갑인자)로 수십 권을 인출하였고, 이후 인수대비가 연산군 2년(1496) 내탕금을 내어 목활자를 만들고 200권을 인출하여 금강산 表訓寺에서 수록제를 행할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¹⁰⁾ 이 책은 조선시대 왕실의 지원으로 제작한 목활자로 인출한 불서로 임란 이전의 목활자본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1책만이 소장되어 있다.

중국 선종의 제6대조인 당나라 慧能(638~713)이 편찬한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제자 法海가 六祖의 지위에 이르기까지의 역정과 그리고 문인들의 수행을 위한 갖가지 설법한 내용을 모은 육조대사의 어록으로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줄여서 ‘六祖壇經’ 또는 ‘法寶壇經’, ‘壇經’ 등으로 약칭한다. 이 책은 연산군 2년(1496) 원문을 분절하여 토를 달고 국역한 언해본을 인경목활자로 간행한 상중하 3권 3책의 활자본이다. 그러나 현재 그 중 권상·중만이 전해지고 있으며, 권하는 그 후 전주 원암사에서 간행한 복각본이 남아 있어 전모를 알 수 있다. 언해의 저본은 지원 27년(1290)에 편찬된 德異本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간행 경위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간행된 『진언권공』에 수록되어 있는 발문

10) 『天地冥陽水陸雜文』跋文. “水陸儀文廣略非一焉曰仔夔曰志槃曰中禮曰結手皆有板本而獨排備疏榜未有歲甲申(1464)我世祖大王求諸中國以鑄字印出數十件頒施…王大妃殿下施內帑刊造木字印出二百件爲成宗大王設水陸于金剛山表訓寺以…王大妃殿下粧橫印施…弘治九年(1496)春三月有日敬跋…”

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발문에 의하면 홍치 9년 즉 연산군 2년(1496)에 성종이 죽자 인수대왕대비와 정현대비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인수대비의 명에 의해 『육조단경』과 『진언권공』을 국역하여 목활자로 각각 300건과 400건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¹⁾ 그러나 이 사업을 주관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혀 있지 않다. 세조 때 국역불서 간행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信眉와 學悅 등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산중으로 이거한 상태였다. 다만 이 무렵 인수대비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스님은 학조뿐으로 간행의 일은 전적으로 학조가 주관하였을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인본으로는 규장각을 비롯해서 산기문고와 일사문고 등에 각각 1책씩 소장되어 있다.

사찰 의식집인 『진언권공』은 施食勸供·日用常行 등 불교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들의 법식을 모아 연산군 2년(1496)에 인경목활자로 간행한 책이다.¹²⁾ 성종이 승하하자 인수대왕대비와 성종의 계비인 정현대비는 연산군 원년(1495) 임금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대대적으로 불서를 印經하였다. 그리고 다음해(1496)에 학조로 하여금 內帑金으로 印經字와 한글활자를 나무로 만들어 먼저 『친지명양 수록잡문』을 찍어내는 한편, 『육조대사법보단경』과 『진언권공』은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이들 불서의 간행 경위는 권말의 발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육조단경』 300건과 『진언권공』 400건을 인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판본의 서지적 특징은 『육조대사법보단경』과 함께 인출되었기 때문에 판식 상에서 거의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한글 활자체가 중전의 것보다 훨씬 필서체화 되고, 한글 표기가 완전하게 실제적인 소리로 환원되었으므로 국어학 상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¹³⁾

11) 『眞言勸供』跋. “若六祖大鑑禪師言簡理豐祖席中卓然傑出故人稱語錄爲經者良有以也我仁粹大王大妃殿下…命僧以國語翻譯六祖壇經刊造木字印出三百件頒施…且施食勸供…祥校得正印出四百件頒施中外焉 弘治九年夏五月日 跋.”

12) 종래 이 책의 重刊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그 복각본이 발견되었다. 동일목 활자로 인출된 『수륙잡문』이 1531년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에서, 그리고 『법보단경』이 1551년에 전라도 전주의 원암사에서 각각 중간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언권공』 또한 임란 이전에 중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3) 안주호, “진언권공·삼단시식문 언해의 문법적 특징,” 『언어과학연구』 22집(2002), 126.

3.3 寶光社字本

보광사자는 조선 고종 때 橘山退士 李裕元(1814~1888)이 청나라 연경에 갔을 때 瑠璃廠의 서점에서 구입해 온 『金剛般若波羅密經』 등의 불서를 찍어내기 위해, 고종 6년(1869) 楊州 천마산에 있는 보광사에서 만든 목활자를 ‘寶光社字’라고 한다.¹⁴⁾ 그러나 일견하여 그 뿌리는 이 보다 직전 시대에 널리 사용된 지갯다리획 인서체자와 매우 흡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 보광사는 고종 때 당시 영의정까지 이른 판부사 이유원이 1851년에 평소 친분이 있던 華潭 敬和(1786~1848)를 위해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굴산의 별장이 있었던 천마산 가곡리에 있는 지금의 普光寺와는 한자 표기가 달라 한 동안 폐사되었다가 새로 중창하면서 표기가 달라 진 것으로 보인다.¹⁵⁾

이 활자의 글자체는 연경에서 구해온 청나라 판본의 인서체 글자를 닮게 새겨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새김이 거칠어 글자 획의 굵기와 가늘기가 일정하지 않고 또한 글자 모양이 가지런하지 못하여 인쇄가 조잡한 편이라는 평이 있으나,¹⁶⁾ 나름 목활자로서 격식을 잘 갖추고 있다. 이들 불서에는 고종 6년(1869) 여름 양주 천마산 보광사에서 찍어낸 간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인본으로는 『金剛經石註』(1869) 등 아래의 표에 보이는 불서가 있다.

14) 이 목활자는 1989년 윤병태가 처음 3종의 불서 인본을 소개하면서 ‘寶光社印書體字’로 字名을 부쳤으나(尹炳泰, 『朝鮮後期の活字와冊』(서울: 범우사, 1992), 454-465), 후에 천혜봉은 ‘寶光社字’로 이름을 새로 붙여 이를 따랐다.

15) 그런데 1870년(고종 7)에 淨願社에서 全史字로 간인한 『淸珠集』의 발문을 보면 佛國翁 三沙가 古靈山 普光寺의 妙意齋에서 발문을 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고령산은 파주에 있어 천마산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전혀 다른 사찰이다. 다만 필자의 선행 논문인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2015. 2)의 전사자본에 『청주집』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 글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16) 천혜봉, 『한국목활자본』(서울: 범우사, 1993), 121-123.

<표 4> 보광사목활자본

活字名	書名	刊行年代	卷次	所藏處	分類
寶 光 社 字	金剛經石柱	高宗6(1869)	單	규장각	經典類-般若部
	普偏光明焰鬘清淨熾盛如意印心 無能勝大明王大隨求疑羅尼經	高宗6(1869)	單	국립중앙도서관	經典類-密敎部
	三峯集 (附: 華潭大師浮屠碑銘)	高宗6(1869)	單	동국대도서관	詩文類-韓國撰
	六祖大師法寶壇經	高宗6(1869)	單	동국대도서관	宗義類-禪宗
	妙法蓮華經	高宗13(1876)	전7권	대성암	經典類-法華部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	高宗13(1876)	單	동국대도서관	經典類-密敎部

조선 후기에 목활자인 보광사자로 인쇄된 불서는 모두 6종이 현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6종의 불서는 1869년과 1876년 2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그 중 『불정심다라니경』은 寶晶寺에서 간인된 판본으로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불경인데,¹⁷⁾ 권수의 일부에는 한문다라니에 대한 한글음역이 기재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런데 한글서체는 당시 필사소설에서 주로 쓰였던 궁체를 방불케 하는데, 그렇다면 인쇄방식이 조금은 특이해 보인다. 한문다라니는 목활자를 사용하였으나, 한글 음역부분의 ‘보살’ 또는 ‘나라’ 등의 글자는 위 글자와 아래 글자가 연이어 있어 낱개 활자로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음역부분만은 별도로 목판에 새겨 보입한 형태가 아닌가 한다.

또한 보정사에서 같은 해에 인출된 『妙法蓮華經』이 최근 북한산 대성암에서 전 7책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범화경은 고려초기부터 수많은 사찰본과 왕실본이 간행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조선 초기에 갑인자와 을해자로 인출된 금속활자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목활자로 간행된 판본은 이 보정사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보정사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구마라집 한역본에 계환이 주해한 주해본을 저본으로 간행된 것이다. 그런데 권말에 ‘光緒元年丙子(1876)仲夏京畿楊洲天麻山寶晶社’라고 기록되어 있어 寶光社와 다르게

17) 그런데 이 책의 권말에 있는 간기에는 ‘天摩山寶晶寺印布’로 되어 있어 사찰명이 조금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천마산에 주변에 있었던 이 보정사는 현재 찾을 수 없으나, 다만 ‘光’이나 ‘晶’의 의미가 모두 빛나다는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어 別稱 또는 異稱이 아닌가 하여 보광사자본으로 함께 취급하였다.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권7의 말미에 보광사를 중창한 이유원이 쓴 중간발문이 수록되어 있고, 또한 판식의 특징상에 활자의 字體가 동일하며 판심의 위쪽에만 白魚尾가 있는 형식으로 보아 보광사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뿐만 아니라 『금강경석주』의 서문에 등장하는 古鏡堂 法能이 證正監印 鏡化緣으로 간행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표제가 ‘濃葩經’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法華’를 고자로 표기한 사실로 보아 한자에 정통한 인사가 간행에 참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寶光社의 ‘光’자를 의미가 같은 다른 글자인 ‘晶’자로 표기하였을 뿐 同寺異稱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스님인 寶月 慧昭가 편찬한 『三峯集』은 三峯 知濯(1750~1839)의 시문집이다. 지탁은 서울 삼각산에 오래 머물렀기에 호를 삼봉이라 하였으나, 법호는 華嶽이다. 그의 전법제자인 華潭 敬和(1786~1848)는 은사 지탁이 해설한 『佛說天地八陽神呪經』에 대해 주석하여 1833년에 주해본이 간행된 사실이 있어 지탁→경화→혜소로 이어지는 사승관계를 알 수 있다.¹⁸⁾ 권수에 1869년 李裕元의 서문과 문손 慧昭의 발문이 있고 권말에 <華潭大師淨屠碑銘> 등이 부록되어 있다. 본문은 혜소가 편집한 <行脚錄>으로 시작하여 시와 기문, 疏文과 說錄, 序 등이 일정한 체제 없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른 스님의 문집에 비해 詩보다 文이 많이 실려 있다. 본문 뒤에는 翠碧 李道玄이 지은 지탁의 행장이 있고 그 뒤에는 受法제자 16인과 受禪제자 15인 등 문도의 명단이 부기되어 있다. 부록은 굴산 이유원이 찬한 <碑銘>과 이유원, 金正喜, 혜소 등의 影讚, 혜소가 지은 <行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 말미에 ‘己巳仲夏楊州天摩山寶光社刊印’이라는 간기가 있어 1869년 보광사에서 간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록의 다음에 다시 수법, 수선제자와 원근의 문도, 신도의 이름과 함께 通度寺 승려집단이 부기되어 있어 그들 간의 관계가 주목된다. 맨 끝에는 간행에 校證으로 참여한 환은 윤정을 비롯해서 三綱에 正雲, 應三, 奉琪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이 문집은 조선 후기 영정조대에서 고종대 사이에 편양과의 동향과 교학적 경향, 유불의 교류를

18) 지탁은 見佛山 江西寺의 性鵬에게 출가한 후, 喚醒 志安에게 사사한 유명한 화엄학 승려 涵月 海源(1691~1770)과 그 제자 翫月 軌泓에게 수학하였고 奎鴻의 제자 漢巖 體詠의 법맥을 형성한다.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고종 6년(1869) 양주 천마산 보광사에서 목활자로 간인된 『金剛經石註』은 石成 金天基가 당나라 道顛의 石本 금강경을 저본으로 集註한 것으로 『般若波羅蜜多心經』이 함께 합철되어 있다. 권수에는 3인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어 본서의 간행과 유통 경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첫 번째 서문은 이 책을 간행하면서 幻隱 允定이 1869년 작성한 「金剛經心經兩註三刊序」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간행 서문에는 古鏡 장로가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주석이 합본된 판본을 구했는데, 이것이 조선에 전해지지 않았던 것을 안타깝게 여겨 여러 사람들로부터 시주를 받아 중간하여 유포한 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서문은 乾隆 49년(1784) 청나라 翁方綱이 작성한 「重刻金剛經石註序」가 있는데, 석주본이 청나라에서 간행된 배경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문은 康熙 41년(1702) 良覺居士 石成 金天基가 석주본을 완성하고 지은 「原敍」이다. 이 원서를 보면 금강경이 唐代 이후로 중시되어 많은 주석서가 간행되어 왔으나, 너무 번잡하고 많아서 사람들이 보기 어려웠음을 한탄하여 재가신자이자 유학자인 자신이 집주하고 ‘石註’라는 이름을 붙여 간행하였음을 밝혔다.

이상의 세 편의 서문 뒤에는 「金剛經總旨」·「金剛經辨異」·「金剛經石註凡例」·「金剛經讀法」·「誦經祛妄」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 본문이 시작하는 첫 장에 ‘金剛經石註’라는 권수제가 보이고, 그 아래에 ‘楊州石成金天基集註’라는 찬자표시가 있으며, 다음 행에 ‘葉河慶·齡曉 楓校刊’이라는 교정자가 기재되어 있다. 이로 보아 김천기가 집주한 것을 저본으로 엮아경과 영효풍이 교정하여 중국에서 간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¹⁹⁾

그리고 권말에는 1869년(고종 6) 보광사에서 중간할 당시 晚悔庵에 거주하던 이유원이 작성한 <重刊石註金剛經跋>이 있다. 이跋문을 보면 현종 11년(1845) 이유원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을 때 본서를 구입해 와서 살펴보니 유가와 불가가

19) 다만 집주자 김천기가 청나라 사람인지는 의문이다. 국립도서관에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권수에 <自敍>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찬자 김천기의 친필본으로 보여 집주자는 조선인으로 생각된다. 현재 모든 고서목록과 연구에는 찬자를 ‘石成金’으로 기재하고 있어 마치 청나라 사람의 이름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하나임을 이해하고 25년 뒤 자신의 발문을 덧붙여 이를 다시 간행하여 여러 사찰에 유포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끝에는 간기가 있어 간행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고종 6년(1869) 여름에 작성된 이 간기에는 왕, 왕비,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慶嬪, 大院君, 府大人에 대한 축원문이 있고, 이어서 국가의 안녕을 바라며 이 경전을 간행하는 공덕으로 일체중생이 無量光佛刹에 태어나 모두 正覺을 이루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바란다는 발원문이 있다. 그 뒤에는 간행에 직접 책임자로 참여한 화주 古鏡와 別座 道雲, 그리고 供司 明珠 등을 밝혀두었고, 마지막으로 시주자의 명단을 열거하였다.

문인 法海 등이 편찬한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앞에서 살펴본 인경목활자본을 비롯해서 많은 사찰판이 현전하고 있다. 이 판본은 북경의 琉璃廠의 會文齋에서 道光 壬辰年(1832) 간본인 東山堂本을 입수하여 다시 고종 6년(1869)에 양주 보광사에서 목활자로 인출한 것이다. 권수에는 구간본과 古筠비구 德異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고, 권말에는 契嵩의 經贊 등이 부록되어 있다. 또한 굴산 이유원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고, 이어 이 책의 간행에 교정자로 참여한 幻隱 允定 등이 보이고 실제 목활자 제작에 참여한 鑄員 鄭承祖, 金斗弘, 吳致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말미에 ‘上之六年同治己巳(1869)夏楊州寶光社開板’이라는 간기가 기록되어 있다.

不空(705~774)이 한역한 『普徧光明焰鬘清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은 수구다라니의 엄송 절차와 그 공덕을 해설한 밀교경전으로 보편광명대수구다라니경, 수구경, 수구다라니경이라 약칭한다. 여기서 ‘隨求’라는 말은 중생이 소원을 구하면 성취한다는 뜻으로 다라니의 효험에 의한 것이다. 이 책은 보광사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상하 2권 1책의 불서이다. 권수에는 동치 8년(1869)에 幻隱 允定이 쓴 ‘隨求陀羅尼經重刊序’가 있고, 권말에는 ‘上之六年同治己巳(1869)夏楊州天摩山寶光寺開板’이라는 간기가 수록되어 있어 고종 6년(1869)에 보광사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같은 해에 간행된 『금강경석주』와 동일한 축수 문구가 있고, 이어서 국가의 안녕을 바라며 이 경전을 간행하는 공덕으로 일체중생이 無量光佛刹에 태어나 모두 正覺을 이루고 널리 중생을 제도

하기를 바란다는 발원문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이 책에 간행에 직접 참여한 인물을 기재하고 있는데, 함께 간행한 판본에도 동일한 내용이 보이고 있다.

3.4 奉印寺字本

봉인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 인근에 소재하는 사찰이다. 봉인사의 창건 사적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塔法堂移建記文>에는 1619년(광해군 11)에 釋迦法印을 봉안한 부도탑을 세웠는데,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봉인사를 창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854년(철종 5)에 慧庵이 중수하고, 1864년(고종 1)에 혜암과 幻翁이 탑과 법당을 중수하였으며, 1925년에는 주지 東坡가 신도들의 시주로 중수하였다. 1928년에는 왕가에서 나라를 위하여 치성하라는 뜻으로 봉인사에 향축을 하사하였는데, 사승들이 황축등을 법당 중앙에 달고 밤을 새우다가 불이 나 20여 칸의 대법당은 물론 응진전과 시왕전 등이 모조리 불타고 큰방과 爐殿 두 동만 남게 되었다. 이 봉인사에서는 아래의 표에 보이는 목활자본 2종 외에도 그 이전에 ① 佛說阿彌陀經(1759년), ② 修禪結社文(1860년), ③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1883년) 등 목판본 3종이 간행된 바 있다.

<표 5> 봉인사목활자본

活字名	書名	刊行年代	卷次	所藏處	分類
奉印	(會編)禪門坵頌集說話	高宗26(1889)	單	국립도서관	宗義類-禪宗
寺字	禪源遡流	高宗26(1889)	單	용화사, 동국대	宗義類-禪宗

봉인사에 목활자로 인출된 불서는 모두 2종이나, 우리나라 스님의 선종에 관련된 저술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 중 고려 후기에 覺雲이 요어를 가려 뽑아 說話한 것에 백과가 會編한 『(會編)禪門坵頌集說話』은 고종 26년(1889)에 천마산 봉인사에서 목활자로 인출한 3권 3책이다. 본래 『선문염송집』은 고려 중기의 진각국사 慧謙이 문인 眞訓 등과 함께 <禪門公案集>을 30권으로 집록하여 간행

한 책이다. 핵심은 선문공안 1,125則을 불경 또는 祖師의 어록에서 발췌한 다음 그에 대한 강령의 요지를 제시한 拈과 찬송을 붙여 이 책을 완성하였다. 현재 각운이 <설화>를 부친 직후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려말선초본은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묘향산 禪定庵本(1686년) 흥양 楞伽寺本(1708년)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봉인사본은 이를 會編한 것으로 3권에 불과하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전질이 소장되어 있다.

국립도서관본은 표지가 간행할 때의 그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앞표지의 좌측 상단에는 둘째가 쌍선으로 된 제침이 붙어 있고, 그 안에는 ‘拈頌說話’라는 간략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권수에는 바로 ‘會編禪門拈頌集說話’라는 서명이 보이는데, 뒤에 보이는 권수제와는 달리 ‘會編’ 2자가 관칭되어 있어 이 책의 성격을 말해 주고 있다. 그 다음 행에 원래 편자인 慧謙에 대해 2행으로 간략히 언급되어 있는데 비해, 이어 說話者로 보는 龜谷 覺雲에 대해서는 2장에 걸쳐 비교적 소상히 기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達磨>·<普賢>·<龜谷>·<覺雲>의 題語 아래 찬문을 부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편집 형식으로 보아 설화자는 귀곡 각운이 분명해 보인다.

권수의 회편에 이어 비로소 ‘禪門拈頌集說話’라는 권수제가 보이고, 이어 <禪門拈頌集序>라는 항목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된다. 여기서부터는 앞서 간행된 선정암본(1685년간) 및 능가사본(1707년간)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 책은 모두 3권 3책으로 되어 있는데, 각 권의 말미에는 <印出施主>의 명단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주명에는 왕대비와 궁중 상궁의 法名으로 보이는 이름이 상당수 보이고 있어, 당시 왕실과 관련된 봉인사의 사격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권3 말미의 시주명 끝으로 ‘光緒15(1889) 京畿道楊州天摩山奉印寺浮圖庵開刊’이라는 간기가 기록되어 있어, 이 책이 1889년에 양주 천마사에 있는 봉인사의 부도암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설두 有炯이 은사인 백과 巨璇의 저술에 대한 草衣와 優曇의 논박을 변론할 의도로 ‘선원(禪源)을 거슬러(遡流)’ 살펴서 찬술한 불서가 『禪源遡流』이다. 봉인사에서는 이 유형의 저술을 바탕으로 1889년에 양주의 봉인사에서 목활

자로 이 책을 인쇄하였다. 찬자 설두 유형은 조선후기에 瑞寬과 太先 등과 함께 화엄의 3대 강백으로 일컬어졌으며, 공선의 『禪門手鏡』을 비판한 초의 意恂의 『禪門四辨漫語』를 반박하여 공선의 입장을 옹호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리하여 설두 유형은 공선의 禪觀에 대한 초의 등 제가의 논박에 대해서 ‘선의 근원적인 문제를 거슬러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이를 서명으로 삼아 저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나무활자로 인출한 것으로, 현재 동국대와 담양 용화사 등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화사본의 앞표지에는 좌측 상단에 쌍선으로 된 제첩에 ‘禪源遡流’라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권수에는 서문이나 목차 없이 바로 표제와 동일한 권수제가 보이고, 이어 다음 행에 ‘白坡門人 雪竇有炯述’이라는 저자표시가 보이고 있어, 이 책이 백과 공선의 문인인 설두 유형의 저술임이 확인된다. 권말에는 1889년(光緒 15)에 幻翁 喚眞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같은 해에 환진의 주관으로 백과 공선의 <垢頌會編>이 봉인사에서 목활자로 인출된 바 있어 두 불서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그리고 발문에 이어 주상전하를 비롯하여 왕대비 홍씨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보이고 있으며, 이어 궁중 상궁의 法名을 비롯하여 學會비구의 이름이 차례로 상당수 시주자가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교정비구대선사설두 유형/대선사환용당환지’이 중앙에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소임을 맡은 비구와 거사들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전체적인 판식상의 특징이 같은 해에 인출된 공선의 <垢頌會編>과 완전히 일치되고 있으며, 또한 <회편>에 사용된 목활자의 동일한 글자들이 이 책의 곳곳에서 頻出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간인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책의 판식 및 목활자의 특징을 비롯하여 간행을 주관했던 인물이 <염송회편>을 간행했던 喚眞과 동일 인물이라는 점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간행된 책임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비록 이 책에 간기가 생략되어 있으나, 이 책 또한 1889년에 양주 천마사에 있는 봉인사의 부도암에서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봉인사 인근의 천마산 寶光社에서는 李裕元의 시주로 북경에서 구입해 온 <淸本金剛經>을 바탕으로 1869년에 나무로 활자를 만들어

<金剛經石註> 등 6종의 불서를 인출한 바 있다. 이러한 당시의 주변 사정과 봉인사목활자본의 자양이 흡사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인근의 보광사에서 활약했던 전문출판인에 의뢰해서 인쇄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3.5 高僧文集

여기에서는 스님의 문집을 목활자로 간인한 것을 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목활자본과는 달리 특정 목활자를 지칭한 용어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스님문집을 찍은 다양한 목활자본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스님의 문집은 대략 90여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목활자로 인출된 판본은 아래와 같이 겨우 7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목활자본 고승문집

書名	著者	刊年	卷數	所藏處	비고
雪潭集	雪潭自優	正祖 8 (1784)	전2권	규장각	聖上8年甲辰孟夏餘窩道人書(睦萬中), 聖上8年甲辰孟夏樊巖居士草于積翠軒中(蔡濟恭), 上之49(1773)年歲在癸巳中秋下滌松陰老人書于夢坊山居
括虛集	括虛取如	高宗 25 (1888)	전2권	규장각	金聲根序, 許薰識, 崇禎紀元後251年戊寅涵弘致能謹序, 戊子7月日金龍寺養眞庵開刊/戊子3月下滌孫滿船抱淳謹跋
櫟山集	映虛善影	高宗 25 (1888)	전2권	김민영	癸未金祖永撰, 戊子心舟謹識/崇禎紀元後5戊子7月日咸鏡道安邊雲峰山釋王寺內院菴開刊
艸衣詩藁	草衣意恂	1906	전2권	동국대	辛卯(1831)孟春洪奭周書, 辛卯申緯題/辛亥(1851)石梧尹致英書, 乙亥(1875)申獻求書, 丙午(1906)圓應戒定謹書, 寫本-辛亥申觀浩跋
克庵集	克庵師誠	1911	전3권	규장각	甲辰秋夕進士白雲李華祥序, 乙巳7月朔日壬申雲坡居士趙秉瑜題于龜山近民軒/辛亥仲春石應達玄謹撰, 徐翰基謹跋, 己酉黃花節朴海齡書
混元集	混元世煥	1912	전2권	계명대	壬子洪義欽序/辛亥小春小晦晦應錫柱謹跋
冲虛大師遺集	冲虛旨册	1917	單	김민영	李承延書, 李敬儒書, 丁範祖撰, 姜鳳欽撰 丁巳初夏春窩主人書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목활자로 간인된 스님문집은 7종으로 파악되었는

데, 18세기 후반에 간행된 『설담집』을 제외하면 그 외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으로 간행시기가 비교적 늦은 편이다. 그래서 『설담집』을 찍은 목활자의 字樣이 비교적 정연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 외 고승문집을 찍은 목활자는 그다지 가지런하지 못한 상태이다.

조선 후기 승려인 雪潭 自優(1709~1770)의 시문집인 『雪潭集』은 상하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권은 시이고, 하권은 편지와 서·기문 각 1편, 문 3편, 月河와 金谷의 제문 2편, 일종의 기행문인 <夢行錄>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霜月 璽筠, 雪坡 尙彦, 蓮潭 有一 등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어 설담과의 교류 관계를 알 수 있다. 권말에는 1770년에 제자 勝濟가 청하여 桐岡 病逋가 쓴 설담화상의 <塔誌>와 松陰의 <祭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집을 통해 18세기 소요문파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되는 문집자료이다. 그런데 정작 간행경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권수에 실려 있는 서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권수에는 간행 시점에 쓴 목만중과 채제공의 서문과 편찬 시점에 쓴 송음노인이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보아 설담의 문집은 그가 입적한 직후부터 편찬이 진행되어 1773년 무렵 완성되었으나, 간행은 정조 8년(1784)에 와서 비로소 목활자로 간인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간행된 『괄허집』과 『역산집』은 문경 金龍寺와 안변 釋王寺에서 고종 25년(1888)에 각각 인쇄되었다. 비록 같은 해에 간행은 되었으나, 활자의 자양과 판식은 사뭇 다르다. 『괄허집』은 1887년 취여의 5세 법손인 惠雲과 抱淳 등이 그 유고를 수집하여 문경 金龍寺 養眞庵에서 개간하였다. 권수에는 1888년에 金聲根이 쓴 서문과 1887년에 許薰이 지은 서문, 1878년에 致能이 쓴 서문이 있으며, 권말에는 1887년에 抱淳이 지은 발문이 실려 있다. 권수에 있는 목록의 말미에 “戊子7月日金龍寺養眞庵開刊”이란 간기가 있어 이 문집이 운달산 金龍寺 양진암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승 善影의 시문집인 『역산집』은 그의 호를 따서 ‘映虛堂遺集’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상하 2권 1책으로 되어 있다. 권수에는 1883년 金祖永이 쓴 서문과 心舟가 쓴 서문이 있으며, 권말에는 李裕元이 쓴 영허대사비명과 문인 戒庵이 지은 행장, 靈應이 지은 影贊,

尹祖崇과 영웅이 쓴 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맨 끝에 “戊子7月日威鏡道安邊雲峰山釋王寺內院菴開刊”이란 간기가 있어 이 문집이 함경도 안변의 석왕사 내원암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반 비슷한 시기에 인쇄된 『克庵集』과 『混元集』이 있는데, 이들 문집은 활자의 자양과 판식의 형태적 특징이 흡사한 것으로 보아 동일 출판공인에 의해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師誠의 시문집은 3권 1책으로 그의 범손인 達玄과 徐翰基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수에 李華祥(1904년)과 趙秉瑜(1905년)가 쓴 서문이 있고, 권말에 저자가 쓴 <世家自敍>와 달현이 1911년에 쓴 가장, 서한기의 발문 및 朴海齡의 後敍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11년에 간인된 것으로 보인다. 승려 世煥의 시문집은 2권 1책으로 권수에는 1912년 8월 洪羲欽이 쓴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1910년 3월 法子 達玄이 기록한 行狀과 1911년 10월 錫柱가 쓴 발문이 있어 1912년에 목활자로 간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권2에는 세환이 1883년 가을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쓴 기행문인 <金剛錄>이 실려 있어 주목된다.

최근 새로운 필사본이 소개되어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초의시고』는 조선 후기 의순이 지은 시문을 모은 것이다. 현재 2종의 필사본과 전사본이 유포되어 있으나, 간인본은 목활자본이 유일하다. 필사본은 2권본과 4권본이 존재하고 있으나, 목활자본은 상하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활자본에는 필사본에 없는 <記文>자료가 다수 수록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권수에는 신묘년인 1831년에 연천 홍석주와 자하 신위가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신해년인 1851년에 석오 윤치영이 쓴 발문과 1875년에 지은 신현구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맨 끝에는 圓應 戒定이 1906년 이 책을 간인하면서 부친 짚막한 발문이 보이고 있다. 이 계정의 발문은 다른 필사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필사본은 대체로 1851년과 1875년 두 차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계정의 인출 발문의 내용 중에 祥雲 應惠와 雙修 一間 등과 함께 출판공인을 모아 인쇄하고 장황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1906년에 목활자로 인쇄된 것은 분명하다. 활자의 字樣은 지갯다리획 인서체자를 방불케 하며, 四周雙邊의 판식은 보광사자본과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4. 목활자본 불서의 문헌적 특성

4.1 조선전기 불서

서적인쇄사에 있어서 활자본 인쇄는 조선전기에 가장 번성한 황금기였다. 그러나 그 중심은 태종 때 주조한 계미자를 비롯하여 임란 이전에 국가 공인기관에서 주성된 금속활자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활자는 금속활자에 가려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되지 못하였으나, 그 명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 건국 직후 태조 때 徐贊이 만든 목활자(서적원자)로 『대명률직해』와 <원종공신녹권>을 간인한 바 있으나, 字樣이 매우 치졸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세종 때 와서 크게 발전되어 한자음을 연구하기 위해 『동국정운』과 『홍무정운』를 찍어 낼 때 사용한 목활자는 매우 정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때 간행된 서적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것이며, 불서의 간행은 세조 때 이르러 을유자를 모방한 목활자를 만들어서 인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임란 이전 조선전기에 간인된 불서는 현재 9종의 불서가 전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 조선전기 목활자본 불서

구분		분류	해당불서	종수	비율
시기	왕대				
조선전기	세조	經典類-般若部	金剛般若波羅密經(六祖解)	6	67%
		律典類-大乘部	開四分律宗記義鏡鈔		
		註疏類-般若部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引教詳義直解		
		註疏類-華嚴部	普賢行願品禮懺法補助儀		
		宗義類-禪宗	伍燈會元		
		史傳類-傳記部	傳法正宗記		
	연산군	宗義類-禪宗	六祖大師法寶壇經	3	33%
		禮懺類-法儀式	眞言勸供		
		禮懺類-齋儀式	天地冥陽水陸雜文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전기에 목활자로 간인된 불서는 모두 9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6종은 세조대에, 그리고 3종은 연산군 때 간행되었다. 세조대에 간인된 불서는 을유자체목활자로 인쇄되었으며, 선종불서를 제외하면 대체로 장소문헌에 해당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당시 세조는 궁안에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수많은 불교전적을 간행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연유로 목활자를 만들어 불서를 간인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간경도감본이 모두 목판본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수월하고 신속하게 인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목활자 인쇄방식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육조 혜능의 주해본인 『금강경육조해』는 혜능의 주해뿐만 아니라 여러 불경을 인용한 집주와 역대 조사들의 어록이 부가된 일종의 선종문헌이다. 이 책은 권수에 육조 혜능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고, 본문은 금강경 원문에 대해 혜능의 주해는 경문보다 한 줄을 내려 시작하며 혜능의 주해문 다음에 집주가 연달아 첨부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이 집주에는 寶積經·法華經·華嚴經·正法眼藏·萬善同歸集·禪要經·傳燈錄·阿含經 등의 불경을 인용하였다. 또한 집주 다음에는 臨濟義玄·逍遙太能·雲門文偃·黃蘗希運·圓悟克勤·治父川老·百丈懷海·大慧宗杲·馬祖道一·雙林傳大士·圭峰宗密·中峰明本·永嘉玄覺 등 여러 선사들의 어록을 게시하고 있다. 그리고 간혹 집주에는 유가정전인 『論語』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되는데, 이는 당시 집주를 행한 찬자의 학문적 취향에서 삼교교섭의 일단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전기에 蒙山 德異의 삼교와 관련된 문헌이 간행되어 널리 유행했던 경향과도 연상되는 부분이며, 서산 휴정이 『三家龜鑑』 또는 『三教龜鑑』을 편찬한 사상적 맥락을 찾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오등회원』이나 『전법정중기』는 선종계 고승들이 남긴 유훈과 어록을 중심으로 편찬한 것으로 전등류에 해당하는 불서이다. 중국의 선종은 불경의 번역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당나라에 이르러서 크게 번성하였으며, 송나라에 들어와 ‘五家七宗’으로 선가의 계통이 확립되면서 선종문헌의 편찬 및 주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처럼 ‘五家七宗’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선종이 융성하게 되는 송대에 이르러 이러한 인식은 더욱 강조되어 많은 전등류가 편찬되었는데, 이 오등회원 또한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편찬된 선서이다. 이 책의 내용은 과거칠

불, 서천조사, 동토조사로부터 시작하여 선문 5종에 이르기까지 전등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역대조사들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계승이 편찬한 『전법정종기』는 육조 혜능을 종주로 선종의 전법을 바르게 기록할 의도에서 저술한 것이다. 그가 살았던 당시는 당말로부터 일어난 배불론이 팽배하였던 시기였다. 그러나 배불의 정도가 가장 심각했던 구양수와 이태백 등과 교류하면서 『輔教編』(3편)을 지어 유불의 조화를 이끌어 내었다. 당시 선종에서 내세우는 ‘西天28祖說’을 부정하고 ‘24조’로 正系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하여 선종의 입장과 전등의 역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 책을 편찬하여 석가에서 제33조 慧能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서천28조설과 6조 혜능의 법맥은 정통성을 확보하였고, 이 공로로 ‘明敎大師’라는 시호를 얻었다.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권1은 석가의 전기와 그 덕을 담고 있으며, 권2-6에는 가섭에서 혜능에 이르는 조사들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권7-8에는 혜능 계통의 正宗分家에 속하는 1,304명의 간략한 전기가 실려 있고, 권9는 혜능 이전에 방계로 갈라진 205명의 宗證과 독자적 계보를 이룬 11명의 고승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7-8의 정종분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혜능을 종주로 이어지는 법맥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분량이 차지하고 있다.

연산군대에 인경목활자로 간행된 불서는 3종에 불과한데, 주로 불교의 의례와 선종의 종전으로 존중되는 문헌이 포함되어 있다. 육조 혜능의 『법보단경』은 혜능을 중심으로 하는 남종선의 입장에서 즉각적인 깨달음, 곧 ‘頓悟’에 대한 수행 방법을 제시한 선종의 지침서이다. 혜능은 이 책에서는 내면적 본성이 혼란되지 않고 도착된 사고가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든 자기 자신의 본성을 보면, 어떠한 외적인 도움도 없이 즉각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혜능 이후 육조의 문하에서 臨濟라는 걸출한 禪僧이 출현하여 남종선의 맥을 잇자 우리나라 고승들도 거의 임제의 법맥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宗旨로 삼은 대표적 고승으로는 고려 때의 보조국사 知訥을 들 수 있다. 그는 혜능이 머물던 조계산의 이름을 따서 자신이 머물던 松廣山의

산명까지 조계산으로 바꾸었다. 또한 그곳에서 定慧結社를 시도하였는데, 그때 후학들의 수행을 『육조단경』과 『금강경』의 이론에 입각하여 지도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선종문헌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책은 한글로 번역하고 한글 목활자로 인쇄되어 국어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그 외에 2종의 의례문헌은 조선전기 궁중에서 시행되는 불교의례 행사에 규범이 될 수 있는 제반 의식을 정리한 것이다. 이미 조선초기부터 궁중의 지원을 받는 사찰에서 수륙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러한 행사의 전거가 되는 <中禮文>과 <結手文> 등이 편찬 보급되었다. 이들 의례문헌은 모두가 한문으로 작성되어 집행 승려나 부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그 중 진언권공과 <작법절차>과 <삼단시식문> 등을 가려 뽑아서 이를 한글로 표기하고 번역하여 만든 책이 『진언권공』이다.

이처럼 조선전기에 목활자로 인출된 불서는 대체로 주석이 가해진 주소류와 선종류, 그리고 불교의례에 관련 예참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조선전기 궁중에서 수행된 수륙제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세조의 호불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주석문헌이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2 조선후기 불서

조선전기 중종반정 이후로 불교계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어 더 이상 왕실의 지원을 받아 불서를 간행하는 일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었다. 대부분의 사찰 또한 산중으로 이거한 상태여서 전형적인 산중불교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리하여 산중의 사찰에서는 주변의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목판본 불서는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활자를 이용한 불서간행은 거의 고종대에 이르러서야 그 명맥이 살아난 듯하다. 다음은 조선후기에 목활자로 간행된 불서를 조사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8> 조선후기 목활자본 불서

구분		분류	해당불서	종수	비율
시기	왕대				
조선후기	정조	詩文類-韓國撰	雪潭集	1	7%
		經典類-般若部	金剛經石柱		
	고종	經典類-法華部	妙法蓮華經	10	66%
		經典類-密教部	普徧光明焰鬘清淨熾盛如意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疑羅尼經,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會編)禪門拈頌集說話, 禪源邇流, 六祖大師法寶壇經		
		宗義類-禪宗部			
		詩文類-韓國撰	括虛集, 三峰集, 櫟山集		
일제	詩文類-韓國撰	克庵集, 艸衣詩藁, 冲虛大師遺集, 混元集	4	27%	

조선후기에 목활자로 간행된 불서는 모두 15종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고종 후반에 10종의 불서가 집중적으로 간인되어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정조대와 20세기 전반에 고승문집이 목활자로 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는 대략 시문류와 경전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선종문헌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경전류에는 대승경전인 금강경과 법화경이 들어 있으며, 밀교경전인 다라니경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금강경석주』는 집주자가 모든 고서목록에 ‘石成金’으로 기입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권수제에는 ‘楊州石成金天基集註’라고 기재되어 집주를 한 사람은 김천기가 분명하다. 그런데 이유원이 重刊 발문에 밝힌 것처럼 이 책의 저본은 북경의 유리창의 同文堂에서 구입해 왔다고 하고, 또한 권수에 청대 학자 翁方綱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어 그 저본이 청판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집주자 김천기는 조선 사람인가 아니면 청나라 사람인가 그 여부가 자못 궁금하다. 이 역시 권수제에 ‘楊州’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揚州와는 한자표기가 다르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 양주로 판단되는데, 저자표기에서 출신지나 본관을 의미한다. 만약 출신지를 의미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런 상황으로 이 책을 간행한 보광사가 양주 천마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관을 표시한 거라면 집주자의 성씨가 김씨이므로 양주김씨 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씨에 양주김씨가 존재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사실로 보아 집주자 김천기는 청인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 분명하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김천기가 청인으로 오해되었던 것일까. 바로 이 목활자본의 권수에 실려 있는 <原敍>를 보면 맨 끝에 찬자를 ‘良覺居士石成金撰’으로 밝히고 있어 마치 성명이 ‘石成金’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원본에는 金자 아래로 ‘天基’ 두자가 더 보이고 있어 찬자가 김천기라는 사실은 바뀔 수가 없다. 이는 단순히 찬자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겸양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관 아래 혹은 성씨의 위에 기재한 ‘石成’은 찬자의 號가 자연스럽다. 이 책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고종 후반인 1869년에 간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장각을 제외하면 그 전존본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전질이 완전한 상태로 발견된 묘법연화경은 권수에 주상전하를 비롯하여 현종의 후궁인 경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원문이 실려 있고, 권7의 말미의 시주자면에는 궁중의 상궁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책은 당시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권수제에 ‘戒環解’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 책은 송대 고승인 계환이 주해한 주해본을 저본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법화경은 대체로 계환의 주해본을 저본으로 삼아 인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계환의 주해본은 고려시대 최씨정권에 의해 중용되면서 고려후기에 천태종 계열의 승려에 의해 크게 유행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선종 계열에서 중시한 법화경의 주해이다.

조선후기 최고의 율사로 추앙되는 인물이 백과 공선이다. 공선은 임제종의 사상을 강령화한 『禪門綱要』에 의거하여 선문의 여러 종파의 특색을 밝힌 『禪門

20) 양주김씨는 신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 大安君 金殷說의 9세손인 金元寶를 시조로 삼아 파생된 가문이다. 시조 김원보는 고려 고종 때 中樞院使를 거쳐 尙書都省, 尙書丞을 역임하고, 禮部尙書, 領敦寧府事, 判樞密院事 등을 지내고 楊州伯으로 봉해진 인물이다. 그때부터 경주김씨로부터 분파하여 貫鄉을 楊州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手鏡』을 저술하여 백양사 운문암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바 있다. 또한 각훈의 『선문염송설화』에 <倉編>을 부쳐 봉인사에서 간인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 설두 유형은 백파의 논지를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선원소류』를 편찬하여 백파의 회편본과 함께 천마산 봉인사에서 목활자로 인출하였다.²¹⁾

그런데 유형이 제시한 논법이 임제삼구에 의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바르지 못한 해석으로 전체를 그르쳤다고 보는 후학들과의 일대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 대홍사의 意恠을 중심으로 秋史·洪基·震河 등이 그 대표자들이다. 초의 의순은 <四辨漫語>, 추사는 그의 서간문 <白坡妄證十五條>, 홍기는 <禪門證正錄>, 진하는 <禪門再正錄>에서 각기 공선의 사상을 논박하였다. 특히 초의는 백파의 <선문수경>이 출간된 뒤 선의 진의가 잘못 전달되어 부처와 達磨의 근본정신이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공선이 선을 조사선·여래선·의리선의 3종선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사선·여래선·의리선이라는 용어는 어디까지나 根機의 三等別이 될 수가 없음을 주장하고, 人名으로 분류하면 조사선과 여래선, 法名으로 분류하면 格外禪과 의리선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四辨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이처럼 봉인사본은 조선후기에 일대 선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된 바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간행된 선종문헌이다.

5. 결 언

조선시대 서적 간행에 있어서 주요한 수단은 목판인쇄이다. 그러나 활자 인쇄 방식 또한 이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종수의 서적을 간행하였다. 활자 인쇄는

21) 이 책은 선문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술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선의 기초단어를 해석한 점이다. 이처럼 臨濟三句를 기준으로 선문의 여러 견해를 일관하려는 입장에서 선문에 대한 변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논변하였다. 이 책에서 임제삼구에 입각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이며, 저자는 임제삼구를 蘊總三句라고도 표현하였다. 이 삼구를 기본원리로 삼아 저자는 三句圖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의례 금속활자를 떠 올리지만 오히려 조선후기에는 목활자를 사용하여 수많은 문중의 족보와 개인의 시문집이 간행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목활자는 민간을 중심으로 일반에 필요한 서적을 사사로이 간행하였으나, 정작 사찰에서는 불서 간행에 그다지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목활자로 간행된 불서의 간행사실을 중심으로 문헌적 특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조선시대 목활자로 간행된 불교서적은 모두 24종이 현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불서는 주로 세조와 고종 때 제작한 을유자체자와 보광사자로 12종이 인출되었으며, 그 외에 연산군 때 만든 인경자로 3종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목활자를 이용하여 고승문집 7종이 간행된 사실이 파악되었다.

둘째, 을유자체자는 세조 때 금속으로 주성한 을유자를 모방하여 나무로 만든 목활자이다. 근래 2종이 추가로 소개되어 6종이 현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후로 새로운 실물자료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전본은 주로 장소류와 선종 관련 불서가 남아 있어 조선 세조 때 오로지 불서를 찍기 위해 만든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경자본은 성종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연산군 원년(1495)다량의 불서를 간행하고 그 사실을 인쇄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그 다음해에 학조가 왕실의 지원을 받아 추가로 한글 목활자를 만들어서 『육조법보단경』과 『진언권공』을 국역하여 간인한 불서 등 모두 3종이 현전하고 있다.

넷째, 보광사자는 경기도 양주의 천마산 아래에 소재하는 사찰로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굴산 이유원과 왕실의 지원으로 나무로 만든 목활자이다. 이 보광사자로는 금강경 등 불경과 고승문집 등 6종을 찍어 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금강경석주』는 그 동안 청나라 사람이 찬자로 알려져 있었으나, 본래 양주 출신의 김침치가 집주한 것 이라는 사실을 새로 밝혔다.

다섯째, 봉인사자는 보광사 인근에 소재하는 봉인사에서 불서를 간인할 때 사용한 목활자이다. 봉인사에서는 2종의 목활자본 불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3종의 목판본 불서도 간행한 사실이 있다. 2종의 불서는 조선후기 선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백과 공선과 그의 제자 설두 유형의 저술로 주목된다. 다만 목활자의 자양이 보광사와 매우 흡사하여 보광사의 인쇄 시설과 기술적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섯째, 고승문집은 여러 종류의 목활자로 고승의 문집을 간행한 것을 말한다. 현재 고승문집은 모두 90여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목판본이며 목활자로 간인된 것은 7종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7종의 고승문집은 주로 조선후기 고종 대와 일제강점기에 인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 金斗種.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0.
- 송일기.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의 복장전적.”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136-157.
- 송일기.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9권 제1호(2015. 2). 223-246.
- 玉泳晷.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2.
- 尹炳泰. “寶光社印書體字에 대하여.” 『古書研究』 제6호(1989).
- 尹炳泰. 『朝鮮後期の活字와冊』. 서울: 범우사, 1992.
- 鄭王根.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 千惠鳳. “燕山朝 印經木活字本에 대하여.” 『趙明基博士華甲紀念佛教史學論叢』. 서울: 동간행위원회, 1965. 26.
-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